

최양업 신부님의 영성과 삶을 내면화하는 교구 공동체의 해

우리의 모든 희망은
하느님의 자비에 달려 있고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 최양업 신부님의 네번째 서한 중에서 -

길 위의 사도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⑧

군산 신시도 체류지 (3)

신시도 앞바다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뿌리고 돌아간 지 2년 뒤인 1849년 4월 15일, 최양업 부제는 상해에서 사제품을 받는다. 그런 다음 8개월 뒤에는 얼어붙은 압록강을 넘어 그리던 고국땅을 밟게 되었다. 1836년 12월 3일에 서울을 떠난 지 13년 만이었다. 그때까지 스승 메스트르 신부는 중국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수없이 조선의 문을 두드렸다. 육로가 안되면 바닷길을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찾아서... 메스트르 신부는 1852년 여름에도 다시 한번 조선 해안으로 와서 입국을 시도하였다. 이때 그가 택한 장소가 바로 '야영의 섬' 신시도였다. 이곳의 주변 환경과 모습은 여전히 그의 기억속에 생생히 남아있었다. 이번에는 하느님께서도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신시도가 그에게 조선 입국의 길을 열어 준 것이다. 1852년 8월 29일(음력 7월 15일) 새벽이었다.

「땀의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그 길을 따라 걷다」 © 천주교 청주교구, 2025

제 1 독 시
회 답 송
제 2 독 시
복 음 환 호 송

1사무 26,27-9.12-13.22-23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1코린 15,45-49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복 음
영 성 제 송

루카 6,27-38
주님의 기적들을 낱알이 전하오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하나이다.



사랑의 세 단계



김태원
요셉 신부
직장사목부 담당

한국 천주교회에 『천주실의』(天主實義)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 신부님이 1601년에서 1610년 사이에 중국 북경에서 전교 및 저술활동을 했을 때, 디에고 데 뻘또하(Diego de Pantoja, 1571-1618) 신부님이 보좌하셨습니다. 뻘또하 신부님은 『칠극』(七克)이라는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이 책에서 신부님은 ‘세 가지 사랑의 단계’에 대하여 이렇게 써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서로』 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습애 習愛)인데, 『예를 들면』 같이 살거나, 같은 직업을 가졌거나, 아니면 감정을 같이 하거나, 의견을 같이하거나 하여 서로 가까워져서 생겨나는 사랑이다. 그런데 이 사랑은 쉽게 모이고 흩어지며, 날짐승이나 길짐승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상제 上帝)이 우리에게 바라는 남을 사랑하는 덕은 아니다.

다시 그 하나는 이치로써 사랑하는 것(이애 理愛)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 그러니 우애가 없고 벗에게 믿음이 없으며, 남을 동정하는 마음이 깊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이룰 수 없고, 세상의 일을 세울 수 없으며, 세상의 변화에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이 사랑할 사람과 자신을 사랑해 줄 사람을 찾는다. 그런데 이 사랑은 인간 세상의 일 때문에 하는 사랑이다. 따라서 사랑을 하는 것도 자신을 위한 것이므로, 덕을 쌓는 것이 작다. 그리고 이것은 악한 사람들도 갖고 있는 것이니, 역시 하느님(상제 上帝)이 우리에게 바라는 사랑이 아니다.

나머지 하나는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인애 仁愛)이다. 어진 이는 남들도 자신과 똑같은 천성을 가진 하느님(천주 天主)의 자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복을 얻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복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살아 있을 때는 하느님(상제 上帝)을 알아 참된 덕을 행할 수 있고, 죽어서는 『하늘로』 올라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참된 복이고, 큰 복이다.

어진 이는 먼저 스스로 하느님(상제 上帝)을 참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그뒤에』 하느님(상제 上帝)을 사랑하는 마음을 옮겨서 남을 사랑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느님(상제 上帝)을 알고 사랑하여서, 살아 있을 때와 죽은 뒤의 참된 복을 누리고, 모든 악(악 惡)을 고쳐서 영원한 재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만약 다른 복이 이 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바라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싫어한다. 이것을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느님(상제 上帝)이 우리에게 바라는 사랑이다.¹⁾

1) 『칠극』, 뻘또하 지음, 박유리 역, PPI32-133, 일조각, 1998년

사랑한다는 말이 오염된 세월을 사는 듯 합니다. 사랑의 참 뜻을 살아가려는 참신앙인이 필요한 세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사랑의 뜻을 깊이 알아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군중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렘브란트 작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루카 6,31).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통합생태론 - 2. 문화 생태론

김태원 요셉 신부 / 청주교구 생태환경 위원장, 직장사목부 담당

『찬미 받으소서』 144, 146항

오늘날 세계화된 경제로 조장된 소비주의적 관점은 문화의 획일화를 추구하고 모든 인류의 보화인 엄청난 문화적 다양성을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획일화된 규율이나 기술적인 개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지역적 문제들의 복잡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개발단계에 있는 새로운 절차들을 외부에서 수립한 틀에 언제나 맞출 수는 없고, 자체적인 지역 문화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삶과 세상이 역동적이기에 우리도 세상을 유연하고 역동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순전히 기술적인 해결책만으로는 문제의 본질과 상관없는 증상만을 다루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민족들의 권리와 문화의 관점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 사회집단의 발전은, 문화적 상황 안에서 전개되는 역사적 과정을 전제로 하며, 지역 사회 일꾼들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에서 시작하는** 지속적이고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은 강요될 수 없으며, 각 인간 집단에 고유한 상징과 관습의 세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중략)

그러나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자연과 문화의 훼손을 도외시한 채 자행되는 광업, 농업, 축산업 개발 계획에 밀려 그들은 자신의 땅을 버리고 떠나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발전을 위한 환경파괴?’, 우리는 산업화 이후 20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풍요를 위해 발전해 왔습니다. 한때 환경문제는 기술의 발전과 부의 축적을 통해 사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이와 같은 현상을 반영한 환경 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¹⁾이라는 이론이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5년 현재에서 생각해 보면, 쿠즈네츠의 주장이 옳은 부분도 있지만 틀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쉽

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산업화의 초기엔 자본가와 노동자의 소득 격차가 크지만 후반에는 불평등이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평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국가들은 이론대로 됐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은 경제 발전 이후에도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이나 대만이나 일본 등은 복지국가 정책으로 불평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이 쿠즈네츠의 예측을 벗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의 감소 문제입니다. 무조건적인 경제성장은 환경오염을 감수한다는 전제를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은 경제성장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발전은 경제개발과 부의 축적만을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9년과 2022년에 있었던 ‘기후 위기 비상행동’과 ‘기후정의 행진’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뜻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본적인 기후문제 해결책은 단순히 탄소배출량을 줄이거나 상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민의 참여와 다양성을 고려한 정의로운 기후-에너지-사회전환을 추구하는 것이 기후정의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찬미 받으소서』에서는 ‘문화 생태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생태론의 바탕에는 ‘공감능력’과 ‘신뢰성 회복’이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연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과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 생태론’에 입각한 환경운동을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막연한 목표달성을 위한 탄소중립운동이 아닌 너와 나의 삶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환경문화의 수립에서 진정한 탄소중립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1) 미국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Simon Kuznets)가 1955년 제시한 이론.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관계를 설명함. 197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함.



나는 아직 철부지

정상옥 세레나 / 수필가, 교구 가톨릭문인회

구름도 날아갈 것 같은 바람 찬 봄날에 동해바다를 찾았습니다. 파도가 쏟아 놓은 하얀 포말에 시선이 머무는 순간 심연에서는 크고 작은 감동의 세포들이 일제히 깨어나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탁 트인 망망대해를 마주하니 쿵쥔대던 심장은 더 크게 울렁거립니다. 눈부신 봄 햇살을 흠뻑 머금고 도 요동치는 파도의 넘나들을 망연히 바라봅니다.

"산산이 부서져 내려야만 한다.

온갖 시름과 탐욕을 순순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오욕 칠정 다 깨부수고 교만도 날려 보내라.

그래야만 찬란하게 솟구치는 새 날과 창해를

고요하게 품 안에 담을 수 있으리."

바다를 찾는 건 누군가에겐 그냥 하루고, 누군가에겐 간절한 기다림이며 또 누군가에겐 머무름의 진한 흔적일 것입니다. 바다를 처음 보았을 때가 아마도 열서너 살쯤인 것 같습니다. 내륙에서 태어나 사춘기까지 큰 강도 볼 기회가 흔치 않았던 그 시절에 일부러 바다를 찾아간다는 건 꿈속에서나 그리는 일이었지요. 중학교 수학 여행길에서 처음으로 동해바다를 만났습니다. 머릿속으로만 그리던 망망대해 앞에 섰을 때 드넓게 펼쳐진 모래사장도 아득했고, 끝을 알 수 없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아찔한 현기증마저 일었던 것 같습니다. 철썩거리며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의 하얀 포말들이 바위를 후려치고 모래톱을 들이받을 때마다 그 거대한 위력에 시골뜨기 작은아이는 털썩 주저앉아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황홀한 낙조 빛을 머금은 운슬을 가르며 어디론가 떠나가는 여객선의 아련한 뱃 고동소리는 꿈에서나 그리던 낭만의 한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바다는 또 다른 동경과 위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부닥치는 고난이 어깨를 눌러 주저앉고 싶을 때나, 실타래처럼 엉킨 세상사로 속이 부글대면 바다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큰 파도의 물보라를 마주하며 웅어리진 고뇌들을 허심히 쏟아내면 어느새 답답하던 가슴은 뻥 뚫리곤 했었으니까요. 넓은 바다를 그냥 무심하게 창망하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 큰 위로가 되곤 했습니다.

젊은 날, 바다와의 조우는 새로운 생기와 희망을 꿈꾸게 했고 각박한 세상살이에서 옥죄기만 하던 마음들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쉼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을 훨씬 넘어선 지금, 내가 찾아드는 바다는 예수 그리스도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 미사에 참례할 때마다 신부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강론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안으로 스미고 있음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분분한 삶의 자락들마저 하느님께 봉헌하며 의탁하지만 때로는 더 많은 사랑과 평화를 갈구하는 욕심도 하릴없이 부립니다.

무시로 성모님 앞에서 저를 위해 하느님께 빌어달라며 칭얼대는 저는 아직 철부지인가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게는 바다가 동경의 출렁거림이며 위로의 안식처입니다.



2025년 정기 회년 동안 대사를 수여하는 교령 (2024.12.24-2026.1.6)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2025년 회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25년 정기 회년을 선포하시면서, 정기 회년 동안 신자들의 영혼을 격려하고 대사를 얻으려는 신실한 열망을 증진하기를 바라시며 ‘대사의 수여와 사용에 관한 교령’을 발표하셨습니다. 교구 공동체가 2025년 회년에 희망의 순례자로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순례 · 거룩한 장소로의 경건한 방문

희망의 순례자들인 신자들은 다음과 같은 장소들을 경건하게 순례한다면 교황 성하께서 수여하시는 회년 대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대사가 수여되는 청주교구 내 순례지

성 지	배티성지, 연풍성지, 멩에목성지, 숲거리성지, 봉암성지
성 당	감곡, 교현동, 내덕동 주교좌, 서운동, 옥천, 음성, 진천 성당
순교자 현양비	청주중앙공원 · 충주관아공원 순교자 현양비



■ 대사 조건

1. 대사가 수여되는 교구 내 순례지에서 참회와 고해성사, 미사영성체 참여.
2. 대사가 수여되는 교구 내 순례지에서 참회와 고해성사, 미사영성체에 참여 할 수 없는 경우, 본당이나 다른 성당에서 참회와 고해성사, 미사 영성체를 한 후, 교구 내 순례지를 방문하여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성체 조배등의 신심행위를 봉헌.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으나 중대한 이유로 다양한 장엄 거행과 순례와 경건한 방문에 참여할 수 없는 신자들(노인들, 병자들, 병원이나 돌봄 시설에서 일하면서 병자들에게 지속적인 봉사를 제공하는 이들)은 순례에 직접 참여하는 신자들과 영적으로 결합해 있으면서, 자기 집에서 또는 병원 및 시설에서 교황님이나 교구장 주교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도, 사도신경, 회년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밖의 기도(2025년 회년 기도문, 십자가의 길, 묵주기도)를 바치며, 자기 삶의 고통이나 고난을 봉헌한다면 회년 대사를 받을 수 있다.
(교구 사무처 공문 2024-43호 참조)



“다시, 신앙 선조들의 열정으로!” 교구 레지오 마리아에 도입 70주년 감사미사

- 일시 _ 3.1.토.10:30 • 장소 _ 내덕동 주교좌 성당 • 주례 _ 교구장 김종강 시몬 주교
- 작은전사회 _ 2.26.수-3.4.화.10:00-18:00 내덕동 주교좌 성당 교육관
- 전시내용 _ 성모님 본당순례 작은전사회 작품(전 신자 관람 가능)

※미사는 자리가 제한되어 있어 미리 등록된 단원에 한해 참례하실 수 있습니다.

▶ YouTube 로 미사가 생중계 됩니다.

▶ 천주교 청주교구 🔍

교구장 동정

■ 청소년사목위원회

일시 _ 2월 25일(화) 오전 11시
장소 _ 한국천주교주교회의(CBCK)

■ 충주가르멜여자수도원 사목방문

일시 _ 2월 27일(목) 오전 10시
장소 _ 충주가르멜여자수도원

■ 교구 레지오마리에 도입 70주년 감사미사

일시 _ 3월 1일(토) 오전 10시 30분
장소 _ 내덕동 주교좌 성당

교구청

사회복지법인 외부감사

일시 _ 2.25.화-26.수
장소 _ 교구청

교리신학원 입학미사

일시 _ 2.27.목.10:00
장소 _ 교구 연수원

제39차 창세기 연수

일시 _ 2.28.금-3.3.월
장소 _ 교구 연수원

카나 혼인강좌

일시 _ 3.9.주일.09:00-18:00
장소 _ 교구청
회비 _ 5만원 ※수강자 본인 사전접수
접수 _ 3.5.수까지 210-1737 가정사목국

엄마와 딸 피정 “사랑은...”(1코린 13장 참조)

일시 _ 3.29.토.14:00-30.주일.15:00

장소 _ 교구 연수원
회비 _ 모녀당 20만원(선착순 20명)
접수 _ 3.14까지 220-1701 청소년사목국



2025년도 셋째이상 자녀출산 격려금 대상자 신청

대상 _ 2024.1.1-12.31중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1자녀당 100만원 격려금)
마감 _ 4.13.주일(추가접수 없음)
문의 _ 210-1737 가정사목국

미사·피정

교구 여성봉사자들을 위한 일상의 작은 피정

일시 _ 3.11.화.09:30-16:00
장소 _ 연풍 성지
대상 _ 충주·증원지구, 괴산 본당 여성봉사자
회비 _ 1만원(3.2까지 마감)
접수 _ 010-2991-2248 여성연합회

직수여 미사

일시 _ 3.1.토.10:30
장소 _ 대전가톨릭대학교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3박 4일 _ 2.26-3.1, 3.27-30
1박 2일 _ 3.8-9, 4.12-13
8박 9일 _ 3.13-21, 4.23-5.1
40일 _ 4.21-5.30
장소 _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_ 031-953-6932, 010-4906-5722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일시 _ 2.28.금.14:00
장소 _ 수동 성당
문의 _ 02-3673-2525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피정

일시 _ 3.8-10, 3.18-20, 3.29-31, 4.1-3, 4.10-12, 4.14-16
추자도 포함 _ 3.13-16, 3.23-26, 4.5-8
운영 _ 성 이시돌 피정의 집

내용 _ 성 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피정
접수 _ 064-796-4182, 02-773-1455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피정

성경완독 _ 3.14-22, 4.4-12
하느님, 바람, 나(힐링피정) _ 3.28-30
문의 _ 010-3340-0201

베론성지 기도학교 기 획피정

3.14.금-16.주일/서상범 주교(군중)
4.17.목-20.주일/성주간피정(기도학교)
5.16.금-18.주일/전현호 신부(대구)
7.18.금-20.주일/신호철 주교(부산)
문의 _ 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제주 면형의 집 피정

추자도 포함 _ 3.9-12, 4.12-15
생태 순례 _ 3.17-19, 3.22-24, 3.28-30, 4.2-4(추), 4.7-9, 4.22-24
운영 _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내용 _ 수사, 신부들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접수 _ 02-773-1463, 064-756-6009

교육·모집

교구 전례꽃꽂이강좌 초급·중급과정

초급 _ 3.7-6.27.매주 금.13:30-15:00
중급 _ 3.7-6.27.매주 금.15:30-17:00
대상 _ 본당 제대꽃꽂이 봉사 희망자
(중급은 초급과정 이수자에 한함)

가톨릭 피부과

피부질환, 레이저클리닉, 피부관리실
피부과 전문의 (사창사거리 다이소 옆 2층)

피부과 전문의 / 의학박사 양태호 루가 | **266-6680~1**

제이와이 JY 어학원

초등부 파닉스, 기초영어 / 중등부 내신, 영문법
고등부 내신, 수능대비 / 성인회화 / 오펙1:1

박주영 안드레아 | **233-0579** (청주시 서원구 경신로35, 2층)

보나투어 성지순례

5/25 산티아고 도보순례 12일 475만원
6/9 서유럽 성모발현지 순례 12일 545만원

대표 김홍민 마태오 | **02-732-4578**

정성 한의원

급만성 통증, 갱년기, 우울증, 성장, 보약
북대동 대농로 70. 3층(지웰시티 2차 맞은편)

대표 김동우 세례자요한 | **236-0202**

성모치과의원(충주)

임플란트, 틀니, 치아교정, 보철치료
통합 치의학 전문의 진료

치의학 박사 안성준 야고보 | **851-7528** (충주시 서원구 경신로35, 2층)

숙성새우젓·각종 발효액젓·신안탈수햇소금

[강경늘봄첫길] 충구역 기금 마련 상담환영/각종 새우젓
명란젓, 낙지젓, 오징어젓, 토하젓, 멍게젓, 친환경 우렁

대표 김형근 루가 | 신안탈수햇소금 20kg | **010-7722-7711** | 택배비 포함 4만 3천원

장소 _ 교구청 ※강좌별 5-15명 선착순 접수
회비 _ 월 24만원(월 4회)
접수 _ 2.28까지 010-6435-4582

가경자 최양업 신부와 함께 하는 제38차 양업순례단 성지순례

일시 _ 3.8.토.08:30 교구청 출발
순례지 _ 은이성지, 골배마실, 미리내성지
회비 _ 7만원 ※선착순 80명
문의 _ 010-2749-9387 ※차기진 박사 해설

교구 가브리엘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_ 교구장 집전 미사, 매주 월 저녁 연습이 가능한 교구 신자
오디션 _ 3.10.월.19:00(자유곡1, 음역테스트)
내덕동 성당성음악원 연습실
마감 _ 3.9.주일까지 문자접수
문의 _ 010-8841-5556

청주성모병원 몸맘 호스피스 기초 과정

일시 _ 3.29.토.8:40-17:40
장소 _ 청주성모병원
회비 _ 1만원(중식제공)



접수 _ QR코드 스캔
문의 _ 219-8814 이념구현부

안내·기타

성직자·수도자·평신도 고해성사

일시 _ 매주 월.14:00-16:00(5주 제외)
장소 _ 내덕동 주교좌 성당

병원운영평의회

일시 _ 2.25.화.10:00
장소 _ 청주성모병원

레지아

일시 _ 3.2.주일.14:00
장소 _ 교구청

재속프란치스코회 충주원죄없으신성모형제회

일시 _ 3.2.주일.14:00
장소 _ 지현동 성당

2월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기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교구 홈페이지
'가정기도' 게시판 열람가능



새 사제와 함께 하는 젊은이 미사

- 일시 _ 2.24.월.19:30
- 장소 _ 가톨릭청소년센터
- 내용 _ 미사, 축하식, 안수식
- 문의 _ 220-1703 청소년사목국



청주주보 광고란 이용을 원하는 업체는 교구청 전산홍보실(☎210-1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뒷목문화사 Tel : 273-5000~2, E-mail : dewmok@naver.com 인쇄 · 출판 · 광고, 성경필사용지 제작 · 판매

교구 성음악원 교육과정 2025년 1학기 수강생 모집

과목	오르간	오르간 기초	성악	청주 성가발성	청주 미사성가 지휘법	충주 성가발성	충주 미사성가 지휘법
대상	본당에서 활동 중인 지휘자/반주자(교중, 평일)/성가단원 및 성음악에 관심 있는 신자						
수업 시간	3.10.월. 3.12.수 개강 매주 월. 수 택일 회당 30분 개인레슨	3.13.목.개강 매주 목 회당 30분 개인레슨	3.11.화. 3.14.금 개강 매주 화, 금 중 택일 회당 40분 개인레슨	3.13.목 개강 매주 목.19:00-20:30 (12주/그룹레슨)	3.11.화 개강 매주 화.19:00-20:30 (그룹레슨)	3.10.월 개강 매주 월.19:00-20:30 (12주/그룹레슨)	3.10.월 개강/12주 매주 금.19:00-22:00 (12주/그룹레슨)
수강료	52만원	52만원	52만원	35만원	52만원	35만원	52만원
비고	3.7.금 접수 마감 ※등록 인원 5명 미만시 폐강 될 수 있음(성가발성 선착순 20명 접수/15명 미만시 폐강)						
문의	010-9098-4561		010-5711-1017	010-6496-5774		010-6496-5774	

2025년 성서사십주간 모집

장소	일시	개강	문의
신봉동 성당(흥덕지구 연합)	매주 수.19:00 미사후	3.5.수	268-9100
교현동 성당	매주 금 19:00-21:00	3.7.금	843-1331~2

벨톤 보청기 충주지사
청각복지카드 소유자 (무료 출장, 상담)
10만원대 구입 가능
원장 주영호 요셉
010-8335-0516 | 857-9494

법무법인 헌암 충주분사무소
민 · 형사, 가사, 행정소송 등
생활법률 무료상담
변 호 사 이두성(비안네) | **853-5700(代)**
사무국장 여현구(요아킴) | 충주시 계명대로 117(교현동)

베트남 북부 성지순례
하노이, 닌빈, 하롱베이, 6월 9일(월)-13일(금)
아시아나항공(인천공항 출발)/150만원
박경동 마리오
마 샘 동행 | **010-9427-1119**

소 세 지 대 장 간
폴란드 전통방식의 수제소세지 / 수제킬바사, 수제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가능합니다.
김창수 안드레아
이보영 안 켈 라 | **010-4773-9689**

백합훈수방, 백합한복대여
40년 전통 한복 디자이너 대상
중랑공원 맞은편 한복거리/상담 예약환영
김하철 안드레아
김은정 에피파나 | **222-9922**
010-5492-2277

보은 대추먹은 흑염소한마리
흑염소 분양, 흑염소 고기, 흑염소 엑기스
보은 황토 생대추, 건대추
김지환 요한 | **010-5833-6541**